

〈김희경전〉 원전 재구*

정 준 식**

차 례

- | | |
|------------------|------------------------|
| I. 문제 제기 | III. 재구된 원전의 가치와 연구 과제 |
| II. 〈김희경전〉 원전 재구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희경전〉의 원전을 재구하여 향후 이 작품을 연구하기 위한 바람직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초기 이본인 김동욱본 계열이 원전의 내용을 충실히 지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기에는 완질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초기 이본인 김동욱본 계열 중에서 각기 전·중·후반부의 내용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 김동욱본 A·D·F를 원전 재구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 이본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결함은 해당 부분의 내용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이본에서 찾아 보충하였다. 이 밖에도 김동욱본 계열을 중심으로 인명·지명 등의 명칭을 통일하고 오타자·중복 표기·비문(非文) 등을 바로잡아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3AA002)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재구된 원전을 통해 <김희경전>이 애초에 장편 여성영웅소설로 창작된 사실은 물론 17세기 재자가인소설의 핵심서사를 수용한 작품임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희경전>은 원전의 내용을 지닌 모본(母本)에서 김동욱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이 분화된 이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두 계열을 교직(交織)하고 후반부를 생략한 성대본 계열이 새롭게 파생되었다는 주장도 보다 설득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재구된 원전을 대상으로 향후 <김희경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김희경전, 장편 계열, 단편 계열, 여성영웅소설, 초기 이본, 원전

I. 문제 제기

<김희경전>은 알려진 이본 수가 30종을 상회할 정도¹⁾이니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본 간의 편차가 심한데도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활자본 중심의 논의를 지속해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김만은²⁾에 의해 <김희경전>의 이본에 장편과 단편이 있음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정준식³⁾과 강승묵⁴⁾이 <김희경전>의 이본을 정밀하게 검토한 바 있다. 이들의 논의를 통해 <김희경전>이 애초에 장편으로 창작 전승되다가 후대에 와서 단편으로 축약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완질본

1)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월인, 1999, 106-108면.

2)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3)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4) 강승묵, 「<김희경전> 이본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희경전>은 부분적으로 생략·변개·축소의 흔적을 보이는 불완전한 이본이므로 원작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희경전>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이본을 중심으로 원전을 재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는 <김희경전>의 원전을 재구하여 향후 이 작품을 연구하기 위한 바람직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여기서 미리 전체해 둘 것은 논의의 연속성과 수월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논의에서 필자가 사용한 개별 이본 및 계열 명칭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⁵⁾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김희경전>의 이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중앙도서관본 <김상서전>(4책 4권, 143장, 완질본) : ‘국중본 A’로 약칭
2. 국립중앙도서관본 <김희경전>(1책, 44장, 낙질본) : ‘국중본 B’로 약칭
3. 김동욱본 <김희경전> 권지일>(1책, 44장, 낙질본) : ‘김동욱본 A’로 약칭
4. 김동욱본 <김희경전 권지초>(1책, 68장, 낙질본) : ‘김동욱본 B’로 약칭
5. 김동욱본 <김희경전 권지이>(1책, 30장, 낙질본) : ‘김동욱본 C’로

5) 기존 논의에서 필자가 검토한 <김희경전>의 이본은 정명기본 계열의 정명기본 A·B, 김동욱본 A·B·C·D·E·F·G, 국민대본(10종), 국중본 계열의 국중본 A·장서각본·한중연본·단국대본·고대본 A·B(6종), 성대본 계열의 성대본·서울대본, 국중본 B, 활자본 A·B(5종) 등 총 21종이다(정준식, 앞의 논문, 239-244면). 본고에서는 이들 가운데 ‘정명기본 계열’을 ‘김동욱본 계열’로 바꾸고, ‘장서각본 <금환괴봉>’과 ‘한중연본 <장시효행록>’을 각각 ‘한중연본 A’와 ‘한중연본 B’로 바꾸는 것 외에는 기존 논의에서 언급된 계열 및 개별 이본 명칭을 그대로 따른다. 초기 이본을 ‘정명기본 계열’에서 ‘김동욱본 계열’로 고쳐 명명하는 까닭은 본고의 논의 결과 김동욱본 A·D·F의 연계성이 확인되었고 이들의 조합본이 초기 이본의 전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약칭

6. 김동욱본 <김희경전 이>(1책, 50장, 낙질본) : ‘김동욱본 D’로 약칭
7. 김동욱본 <김희경전 권지중>(1책, 48장, 낙질본) : ‘김동욱본 E’로 약칭
8. 김동욱본 <김희경전 제삼>(1책, 53장, 낙질본) : ‘김동욱본 F’로 약칭
9. 김동욱본 <김희경전 권지하>(1책, 38장, 낙질본) : ‘김동욱본 G’로 약칭
10. 고려대학교 도서관본 <김희경전>(4권 4책, 162장, 완질본) : ‘고대본 A’로 약칭
11. 고려대학교 도서관본 <김희경전>(1책, 58장, 낙질본) : ‘고대본 B’로 약칭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금환괴봉>(6권 6책, 188장, 완질본) : ‘한중연본 A’로 약칭
13. 단국대학교 도서관본 <금환괴봉>(2책, 189장, 낙질본) : ‘단국대본’으로 약칭
14. 성균관대학교 도서관본 <김승서전>(2권 2책, 112장, 완질본) : ‘성대본’으로 약칭
15. 서울대학교 도서관본 <김희경전>(2권 2책, 138장, 완본) : ‘서울대본’으로 약칭
1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장시효횡록>(8권 1책, 51장, 낙질본) : ‘한중연본 B’로 약칭
17. 정명기본 <김희경전 권지이>(1책, 52장, 낙질본) : ‘정명기본 A’로 약칭
18. 정명기본 <김희경전 中下>(2권 1책, 66장, 낙질본) : ‘정명기본 B’로 약칭
19. 국민대학교 도서관본 <김희경전 권지삼>(1책, 34장, 낙질본) : ‘국민대본’으로 약칭
20. 광문서시본 <김희경전>(활자본, 120면) : ‘활자본 A’로 약칭
21. 신구서림본 <여지충효록>(활자본, 73면) : ‘활자본 B’로 약칭

II. <김희경전> 원전 재구

<김희경전>은 창작 당시 장편의 분량을 지녔다가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단편으로 축약되는 변모를 겪었다. 본래 이 작품은 김희경과 장설빙의 만남·이별·고난을 다룬 전반부, 김희경과 장설빙의 입신·영웅적 활약·혼인을 다룬 중반부, 김희경과 이소저의 만남·이별·혼인을 다룬 후반부로 구분된다.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장편 계열은 이를 모두 갖추고 있음에 비해 단편 계열에는 예외 없이 후반부가 생략되었다. 물론 장편 계열이라고 해서 내용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대목에서 생략·변개·축소·부연의 흔적을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기존 논의에서는 <김희경전>의 이본을 김동욱본 계열, 국중본 계열, 상대본 계열로 나누고 이들을 각기 초기·중기·후기 이본으로 추정하였다.⁶⁾

그렇다면 <김희경전>의 원전 재구 작업에서는 초기본인 김동욱본 계열을 핵심 자료로 삼으면 되는 것일까? 기존 논의에서 김동욱본 계열로 분류된 이본은 김동욱본 A·B·C·D·E·F·G·국민대본·정명기본 A·B 등 10종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완질본은 1종도 존재하지 않고 전반부가 필사된 김동욱본 A·B, 중반부가 필사된 김동욱본 C·D·E·정명기본 A, 후반부가 필사된 김동욱본 F·G·국민대본·정명기본 B⁷⁾ 등의 낙질본만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김희경전>의 원전 재구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정준식(2007), 249-260면. 최근 논의에서 <김희경전>은 대략 18세기 말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김희경전>의 초기 이본은 19세기 초반을 전후한 시기에, 중기 이본은 19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후기 이본은 19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에 각기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김동욱본 계열이 초기 이본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이 계열의 이본들이 모두 19세기 초반을 전후한 시기에 필사된 것은 아니다.

7) 정명기본 B는 중반부와 후반부가 함께 필사되어 있는 이본이다.

<김희경전>의 이본을 둘러싼 기존 논의의 쟁점은 김동욱본 계열을 별도의 계열로 설정할 수 있는가와 김동욱본 계열을 초기 이본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로 요약된다. 논쟁의 계기는 정준식⁸⁾이 낙질본으로 존재하는 이본 10종을 모아 김동욱본 계열로 설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강승묵⁹⁾이 낙질본을 완질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하면서 김동욱본 계열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김희경전> 원전 재구 작업을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먼저, 김동욱본 계열을 별도의 계열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기 따로 존재하는 낙질본까지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김동욱본 계열에서 전반부만 지니고 있는 김동욱본 A·B는 동일 모본에서 파생된 이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표현까지 거의 일치된다. 둘 가운데 김동욱본 A가 B에 비해 내용이 충실하고 서사 논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김동욱본 C는 중반부만 지니고 있는 이본인데, 완질본에 견주어 볼 때 김동욱본 A와의 연결이 매우 자연스럽게 합당하다.¹⁰⁾ 한편 김동욱본 계열 가운데 중반부를 지닌 이본에는 완질본에는 생략된 대목¹¹⁾ 및 완질본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¹²⁾이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8) 정준식(2007), 259면.

9) 강승묵, 앞의 논문, 11-12면 및 21-22면.

10) 김동욱본 A의 마지막 부분은 여장한 채로 최승상의 생신연에 초대된 김희경이 최소서 앞에서 ‘봉구황곡’을 타고 평론을 부탁하자 최소서가 이를 눈치 채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좌중의 부인들이 영문을 모른 채 의아해하는 장면인데, 김동욱본 C의 시작 부분인 “화설 부인과 제인은 미귀(기미)을 아지 못흐고”(김동욱본 C, 1면)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요컨대 김동욱본 A와 C는 각기 따로 존재하는 전반부와 중반부이지만 둘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두 이본의 내용이 국중본 계열의 전반부·중반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들을 별도의 계열로 설정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11) 급제 후 회경과 설빙의 만남 대목, 연왕 달초 대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12) 보검과 병서를 얻는 대목과 군담 대목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중반부의 이런 특질을 공유한 이본 가운데 김동욱본 D와 정명기본 B는 후반부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명기본 B는 후반부 전체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정명기본 B의 후반부에는 완질본에는 생략된 대목¹³⁾ 및 완질본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¹⁴⁾이 수용되어 있다. 이와 같이 김동욱본 계열은 전·중·후반부에서 완질본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이들 간의 연계성까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계열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김동욱본 계열을 초기 이본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중본·성대본 계열보다 선행본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앞서 검토된바 김동욱본 계열의 전·중·후반부에는 완질본에 생략된 내용이 빠짐없이 수용되어 있고 군담에서도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완질본에 생략된 내용은 원래 생략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므로 무리한 생략이라 할 수 있고, 군담의 경우 김동욱본 계열의 군담이 독특하고 완질본의 군담은 매우 익숙한 것이다. 이처럼 군담이 ‘독특함’에서 ‘익숙함’으로 변질된 것은 작가가 창안한 군담이 초기에는 그대로 전승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 당시 성행하던 <설인귀전>, <소대성전>, <홍계월전> 등의 군담에 이끌린 새로운 이본¹⁵⁾이 생성·유전된 탓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김동욱본 계열은 국중본·성대본 계열보다 앞서는 초기 이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김동욱본 계열에 속하는 낙질본들의 연계성 및 이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에 주목한다면 <김희경전>의 원전을 재구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동욱본 A·D·F를 원전 재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 이본이 각기 초기 이본의 전반부·중반부·후반부의 내용을 가장 온전하게 지니고 있기 때

13) 부적과 환약을 얻는 대목, 김희경과 이소저·영월공주의 혼인 허락을 받는 대목을 말한다.

14)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의 성명이 완질본과 다르다.

15) 국중본 계열을 가리킨다.

문이다. 초기 이본인 김동욱본 계열은 전반부·중반부·후반부가 따로 존재하므로 원전 재구 작업도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1. 전반부, 김희경-장설빙의 만남·이별·고난

<김희경전>의 전반부는 김희경과 장설빙의 만남·이별·고난을 다룬 부분이다. 필자가 수집한 21종의 이본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이본은 총 11종이다.¹⁶⁾ 이 가운데 김동욱본 계열에 속하는 것은 김동욱본 A·B 뿐이다. 두 이본은 전반부만 남은 상태인데 필사된 부분의 내용과 세부 표현이 서로 일치된다.¹⁷⁾ 이는 곧 두 이본이 동종의 이본을 모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본다면 <김희경전>의 원전을 재구할 때 전반부는 초기 이본에 해당되는 김동욱본 A를 선본으로 취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김동욱본 A의 내용을 완질본의 전반부와 대비해 보니 적지 않은 차이가 포착되고 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기로 한다.

① 승이 본디 위인이 화려하고 뜻이 소활하여 일편단심의 천지 괴미와 만고 명기를 품어스미 실노 고인 풍도를 가졌난지라 미양 즈탄하여 가로되 어니 썩의 단계를 것거 옥계의 용치를 부치며 규방의 숙녀를 구하여 금당의 쪽을 무어 녹수의 원앙 삼아 부모를 효양코져 원이로 디 이곳이 협축헝디 숙녀 업살가 근심일너니 이제 부모의 명교 이갓 트니 실노 너의 적심을 발원홈이라 헝고 드디여…(성대본 김상서전, 4면)

② 부인이 홀연 선녀의 말을 씨다라 희산혈 썩 선녀 와 이로운 말을 다

16) 김동욱본 A·B, 국중본 A·B, 한중연본 A, 고대본 A·B, 성대본, 서울대본, 활자본 A·B 등이 이에 해당된다.

17) 다만 김동욱본 A는 B에 없는 세부 표현까지 지니고 있으므로 두 이본 가운데 김동욱본 A를 전반부 복원의 주된 자료로 활용한다.

전흔디 상셔 뒤경왈 나의 회담이 과연 진언이 되리로다 그러나 푸른
복숭아 가온디 김석 사이의 썩러졌단 말이 그 어인 말삼잇가 너종의
자연 알너니와 실노 썩닷기 어렵도다 (성대본 김상서전, 10면)

③ 너 비록 자모의 교훈을 듯지 못하여시나 엄군의 경계를 힘입어 적이
고셔를 박남흐미 자고지금의 현인군자와 풍뉴호사의 횡지를 효칙할
일이 만흐되 오히려 항복지 안엇더니 촌인은 실노 고금의 처음이로
다 호접이 장주를 썩여 너의 침변의 임함이 잇난가 엇지 이런 사람
이 인세의 이스리오 (성대본 김상서전, 14면)

위의 예문 ①은 김정 부부가 김희경에게 경성으로 가서 배필을 구하
고 과거에도 응시할 것을 권하자 김희경도 본래부터 이런 뜻을 지니고
있었음을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예문 ②는 정씨 부인이 장설빙을 낳을
때 구완하러 온 선녀가 일러준 말을 남편 장상서에게 전하자 장상서가
그 말의 의미를 몰라 의아해하는 장면이다. 한편 예문 ③은 장설빙이 형
초 객점에서 피서차 잠시 쉴 때에 창밖으로 몰래 김희경을 엿보고 혼자
서 탄복하는 말이다. 물론 예문 ①②③이 없어도 해당 부분의 서사논리
에 단절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이 내용은 중·후기 이본인 국중본·성대
본 계열에는 모두 나와 있는데 김동육본 계열에만 생략되었다.

이 외에도 국중본·성대본 계열에만 나와 있고 김동육본 계열에는 나
오지 않는 내용이 전반부 곳곳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¹⁸⁾ 이렇게 볼 때
위의 ①②③을 포함한 해당 부분의 내용들은 초기 이본이 후대로 전승
되는 과정에서 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전 재구 작업에서 이들
은 모두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김희경전>의 전반부에서 이본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은 ①김희
경이 파과(罷科) 소식을 듣고 귀가하는 대목, ②정숙공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 ③최승상 생신연에 온 최부인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 ④여장한 김

18) 김동육본 B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2면, 3면, 5면, 8-9면, 11면, 18면, 24면, 26
면, 58면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희경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대목 등이다.

①은 형초 객점에서 장설빙과 이별한 김희경이 경성으로 향하다가 낙동강에 이르러 선비들로부터 파과소식을 듣고 귀향하는 장면이다. 김희경은 애초 배필을 구하고 응과(應科)할 목적으로 집을 떠나 경성으로 향하다가 형초 객점에서 우연히 장설빙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 그가 설빙과 이별한 뒤 가야 할 곳은 경성이라야 마땅하다. 김동육본 계열의 김동육본 A·B와 국중본 계열의 국중본 A·한중연본 A에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성대본 계열의 모든 이본에는 이 내용이 생략된 채 김희경이 느닷없이 고향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논리상 모순을 보인다.

②는 장설빙이 김희경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다. 형초 객점에서 김희경과 이별한 장설빙은 증첩되는 고난에 직면한다. 처음 장설빙은 외숙을 찾아 탁주로 갔다. 하지만 외숙은 이미 죽고 남은 가족은 이사하고 없었다. 크게 실망한 장설빙은 부친을 찾아 북해로 갔지만 부친 또한 작고한 뒤였다. 부친의 시신을 고향에 안장한 장설빙은 김희경을 찾아 사방을 다녔지만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한 채 강물에 투신하게 된다. 이처럼 장설빙이 김희경을 만나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은 정숙공 때문이다. 평소 김희경의 부친과 사이가 좋지 않던 정숙공이 하람 원으로 부임해 오자 김정이가 가족을 이끌고 영천으로 이사한 것이다.¹⁹⁾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국중본과 성대본 계열의 여러 이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²⁰⁾ 김동육본 A·B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로 보건대 ②는 김동육본 계열에는 없다가 국중본 계열에 와서 부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은 김희경과 최소저의 만남을 매개한 최부인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

19) 국중본 A, 71면, “정숙공 민은 본디 간악한 인간이라 소시의 평장으로 더부러 크게 허물이 있는 고로 피츠 험극이 잇더니 정숙공 민이 하람영을 흐여 오니 평장이 스스로 가권을 거나려 영천으로 이스흐니 일로쫓츠 장소저 소식이 더욱 망연흐더라”

20) 국중본 A, 한중연본 A, 고대본 A, 성대본, 활자본 A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다. 여장한 김희경이 최승상의 생신연에 거문고 타는 악사로 초대되어 여러 부인들이 모인 내당에 갔을 때, 최승상의 딸을 꼭 데려와 거문고 곡조를 듣게 해야 한다며 기필코 자신의 뜻대로 일을 성사시킨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최승상의 질녀이다. 이 내용은 김동욱본 계열의 김동욱본 A·B에는 모두 나와 있는데 국중본과 성대본 계열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²¹⁾ 이로 보건대 ③은 원전에 있던 내용이 국중본과 성대본 계열에 와서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는 김희경과 최소저의 이색적인 만남을 위한 장치로 마련된 장면이다. 몰래 여장을 한 남성이 마음에 둔 여성 앞에서 거문고 곡조를 연주하다가 마지막에 ‘봉구황곡’을 연주함으로써 자신이 남자임을 넘지시 알리는 이 장면은 <구운몽>의 해당 장면을 변용한 것이다.²²⁾ 이 내용은 고대본 A를 제외한 국중본 계열에 모두 생략된 반면, 김동욱본과 성대본 계열에는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²³⁾ 이로 보건대 ④도 원전에서부터 갖추어져 있던 내용이 국중본 계열에 와서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김희경전>의 전반부는 ①~④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김동욱본 계열의 김동욱본 A·B에 수용되어 있는 것은 ①③④이고, ②는 국중본 계열에 와서 처음으로 부연되어 성대본으로 계승된 것이다. 따라서 원전의 전반부를 복원하면서 김동욱본 A·B를 주된 자료로 삼았고, ②는 후대의 부연이므로 제외하였다.

2. 중반부, 김희경-장설빙의 입신·영웅적 활약·혼인

<김희경전>의 중반부는 김희경과 장설빙의 입신·영웅적 활약·혼인을 다룬 부분이다. 중반부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이본은 10여 종인데,²⁴⁾

21) 국중본 계열의 고대본 A에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수용되어 있고 성대본 계열의 성대본에는 이 내용이 축약되어 있다.

22) 정준식(2008), 177-178면.

23) 김동욱본 계열의 김동욱본 A·B에 수용되어 있고 성대본 계열의 성대본·서울대본·활자본 A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진 곳은 ①급제 후 희경과 설빙의 만남 대목, ②연왕 달초 대목, ③보검과 병서를 얻는 대목, ④군담 대목, ⑤김평장 생신연 대목, ⑥상화루 답소 대목 등이다.

①은 형초 객점에서 잠시 만나 장래를 약속하고 헤어진 김희경과 장설빙이 술한 고난 끝에 급제를 계기로 다시 만나 첫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다. 이별 후 두 사람은 각기 상대를 찾기 위한 고행을 이어갔지만 길이 계속 엇갈린 탓에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이에 장설빙은 강물에 투신했다가 전 참지정사 이영에게 구출되고, 장설빙의 투신을 확인한 김희경은 최승상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러다가 응과·급제를 계기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만, 이때는 장설빙이 남장을 한 채 ‘장수정’으로 변성명하였으므로 김희경은 그의 정체를 알 리 없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문답이 오간 것이다.

희경이 설빙에게 던진 질문은 부친이 유배될 때 아들이면서 왜 따라가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빙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④ 일 "은 혼 도인이 와 소제를 보고 단명타 하여 남을 주어 길을 권 하여 니참정의게 가 길너 중시 근본을 몰납삼드니 부친 상사의 참정이 남의 천륜을 막지 못하여 그제야 실정을 이르시미 소제 망극하여 북희로 가 부친 시신을 운구하여 선산의 안장하고 초토를 지너 후 여성이 부지후옵다가 요행으로 금방의 참여하여 망친의 원을 신설하고 지금 소분하려 하니 소분 후 죽사와도 혼이 업나이다 한림이 청과의 그리이 여겨 감창하여 다시 문왈 형이 다른 동귀 업는닛가 학식 답왈 소제를 니참정 집의 보닌 후 소미를 나오사 유하의 모친이 기세하신 후 부친이 적거하시미 심규약질이 외로오물 견디지 못하여 여즈" "이 유리하다가 부친을 차져보고 죽고져 하여 북희로 가다가 득달치 못하고 만경창과의 고훈이 되니 너 원혼이 흉중에 띠

24) 김동욱본 D·정명기본 A·국중본 A, 한중연본 A, 고대본 A, 성대본, 서울대본, 활자본 A·B 등은 중반부의 내용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정명기본 B, 김동욱본 C·E, 한중연본 B 등은 그 중의 일부만 지니고 있다.

쳐드니 오날 형이 무르시니 비회를 검치 못하여 실정을 고히나이
다²⁵⁾

인용문 ④는 정명기본 A, 김동육본 C·D, 성대본, 활자본 A에 수용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앞의 세 이본은 김동육본 계열이고 뒤의 두 이본은 성대본 계열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문답 내용이 김동육본과 성대본 계열에만 나와 있고 국중본 계열에는 어디에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성대본 계열의 문답 내용이 김동육본 계열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성대본 계열의 해당 부분은 김동육본 계열에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②의 내용은 김동육본 계열에서 취하되, 그 중에서도 중반부의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김동육본 D를 근간으로 삼았다.

②는 장설빙이 연왕의 태부로 있을 때, 연왕이 궐내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몰래 도망친 행위를 엄히 꾸짖고 매질하는 장면이다. 천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연왕이고 아우는 제왕이다. 천자가 장설빙과 김희경을 각기 연왕 태부(太傅)와 제왕 사부(師傅)로 삼아 정도로 가르칠 것을 주문했다. 평소 강직하기로 이름난 장설빙은 천자의 뜻을 받들어 스승을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은 연왕을 가차 없이 다스린 것이다. 이 장면은 고대본 A를 제외하면 중반부를 지닌 모든 이본에 두루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대목이 창작 당시의 원작에서부터 설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대목의 압권은 연왕에 대한 장설빙의 ‘질책 장면’이 아니라 질책 후에 이어지는 ‘달초 장면’이다. 달초(撻楚)란 스승이 제자를 훈계하기 위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김희경전>의 작가는 여주인공 장설빙의 강직함을 부각하기 위해 특별히 달초 장면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육본 계열의 정명기본 A·B, 김동육

25) 김동육본 D, 12-13면.

본 C·D에 달초 장면이 빠짐없이 수용된 사실이 이러한 추정의 타당성을 더해준다. 그러다가 궁중 여성들에게 읽히기도 했던 국중본 계열에 와서 이 장면이 생략된 이래, 국중본 계열의 해당 대목이 성대본 계열로 계승되면서 달초 장면은 초기 이본인 김동욱본 계열만의 특징으로 남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②는 정명기본 A·B, 김동욱본 C·D 가운데 어느 이본의 해당 부분을 선택해도 무방하겠으나, 중반부의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김동욱본 D를 주권 자료로 삼았다.

③은 장설빙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설정된 것이다. 태평한 시대에 느닷없이 장설빙에게 한 도사가 나타나 보검과 병서를 주고 간다는 설정은 오래지 않아 전쟁이 닥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장설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 대목은 중반부가 필사된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김동욱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의 차이가 확인된다.

⑤ 일 "은 학식 조회를 파하고 도라오드니 흘연 흐 도스 소요관을 쓰고 청하의를 입고 언덕을 의지하여 길이 읍혀여 막거늘 학식 황망이 말게 내려 공경 담네하고 문왈 학성이 일즉 뵈온 빈 업거늘 이갓치 감격키 흐시니 감이 못잡는니 도호는 뉘라 흐시며 무삼 허물을 가로치고져 흐시는잇가 그 도식 미" 이 웃고 소미로서 보검 일병과 칩 흐 권을 너여 주며왈 천지간 지극키 비밀흔 일을 감이 누설치 못흐는니 이 두 가지를 심쓰면 불구의 임군의 은혜을 감고 선영을 빗너여 충효 쌍전혈 거시니 남이 알게 말나 하고 문득 간 디 업거늘 학식 가장 괴히이 여겨 즈셔이 보니 칼이 삼 척이 못흐되 일월 정괴 은" 이 쏘 여거늘 두로 보니 티양검이라 흐여드라²⁶⁾

인용문 ⑤는 김동욱본 D에서 장설빙이 퇴조(退朝)하는 길에 한 도사로부터 보검과 병서를 얻는 대목이다. 그런데 국중본 A에는 장설빙이 보검과 병서를 얻는 곳이 '퇴조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되어

26) 김동욱본 D, 28-29면.

있다.²⁷⁾ 이는 김동욱본 계열의 해당 내용이 국중본 계열에 와서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③은 김동욱본 계열 중에서도 중반부의 내용이 충실한 김동욱본 D에서 취했다.

④는 김희경과 장설빙의 영웅적 활약을 그려낸 군담 대목이다.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에는 군담이 관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적을 압도하며 대승을 거두는 여성형상이야말로 조선 후기 여성영웅소설 독자들이 요구한 통속적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희경전>의 군담은 여타 여성영웅소설의 그것에 비해 분량이 꽤 많은 편이다. 아무리 여성영웅소설에 군담이 관습적으로 설정된다지만, 한 차례 전쟁을 30면 내외의 분량²⁸⁾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김희경전>은 군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흥미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김희경전>의 군담 대목은 김동욱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이 서로 다른 내용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계열이 보이는 차이는 ㉠출정 당시 김희경과 장설빙의 직위, ㉡원국과 대적한 나라의 이름, ㉢전쟁의 양상 등에서 확인된다.

㉠의 경우 김동욱본 계열에는 출정 당시 장설빙과 김희경의 직위가 ‘대원수 겸 수륙병마도총독’과 ‘부원수 겸 위국안찰사’로 되어 있는데, 국중본 계열에는 ‘대원수’와 ‘부도독’으로 되어 있다. ㉡의 경우 김동욱본 계열에는 원국과 대적한 나라가 ‘위국’과 ‘형국’으로 되어 있는데, 국중본

27) 국중본 A, 112면, “일”은 학식 홀노 경무를 완상하고 그을 지어 음영히더니 문득 한 유성이 밧그로쫓차 와 바로 중현의 올라 읍하고 안지며 왈 서로 보왓지 거의 이십년이 되었은지라 괴간 고히이 다 진하고 북녁이 무궁히리노다 흐거늘 학식 그 거동을 보니 갈진표의로 기골리 비범하고 탈속흔 형상니 완연히거늘 혹시 심중의 해오되 너 나희 비록 저그나 벼살리 육경의 잇고 일흠니 일국의 유명하야스니 제 비상한 사름이 아이면 엇지 혼 뉴싱의 복식으로 당돌리 중당의 올라 다만 읍만 히리오 일정 고희흔 스편니 나를 취막히려 왔도다”

28) 초기 이본인 김동욱본 D에는 30-61면까지, 후기 이본인 성대본에는 141-169면까지 전쟁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계열에는 ‘위국’과 ‘남경국’으로 되어 있다. ㉔의 경우 김동욱본 계열에는 ‘위국’과 ‘형국’이 변방에서 합심하여 원국과 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중본 계열에는 ‘위국’이 변방에서 원국과 싸울 때 ‘남경국’이 황성을 엄습하여 원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동욱본 계열에는 장설빙과 김희경이 변방으로 가서 위국과 형국을 한꺼번에 무찌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반면 국중본 계열에는 장설빙과 김희경이 위국을 평정한 뒤에 다시 황성으로 가서 남경국 군사들을 진압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²⁹⁾ 이처럼 판이하게 다른 두 군담 중 원전에 가까운 것은 김동욱본 계열인데, 그 중에서도 김동욱본 D의 군담이 가장 충실하므로 이를 취했다.

⑤김평장³⁰⁾ 생신연 대목은 김희경이 장설빙·애월공주와 혼인한 뒤 곧바로 이어진다. 김평장의 생신연은 내당과 외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내당에서는 석부인의 주관으로 세 며느리(최씨, 장설빙, 애월공주)의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외당에서는 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김평장이 좌승상 최호에게 놀림을 당한다. 전자의 경우, 세 부인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서차(序次)를 정하지 못해 고심하던 차에 황제가 전지를 내려 장설빙을 상원(上元)으로, 최씨를 버금으로, 애월공주를 말좌(末座)로 삼게 함으로써³¹⁾ 세 부인의 위계가 엄격히 정립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좌승상 최호가 노골적으로 김평장을 희화화하는 장면이다. 최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김평장을 상대로 초운이란 기생을 아느냐며 끝까지 추궁하고, 이에

29) 정준식(2007), 258면.

30) 김평장은 김희경의 부친 ‘김정’을 가리킨다. 김정은 김희경을 낳기 전에 ‘평장사’라는 벼슬에 오른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김희경 출생 이후 ‘김평장’은 ‘김정’을 가리키는 애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31) 김동욱본 D, 172면, “집이 총망하여 밋쳐 전지를 못하여느니 오날” 좌차의 일경 불편할 듯하기로 차례를 정하여 직첩을 나리느니 삼가 명을 어기지 말나 장씨는 비록 나뉘 만나시나 언약은 몬져 정하여시니 장씨로 상원층열부인을 하시시고 최씨로 정열부인을 하시시고 익월공주로 세지부인을 하시시니 선심을 숭상하여 은의를 미즈라”

대해 김평장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찢찢매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장면은 최호가 지난날 여악사로 변장한 김희경에게 속은 일을 그의 부친에게 대신 복수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그런데 국중본과 성대본 계열에는 외현의 잔치 장면이 온전히 구비되어 있는데 김동육본 계열의 김동육본 D·E·정명기본 B에는 이 장면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김동육본 계열에는 ⑤가 김평장 생신연이 아니라 이에 앞서 김희경과 장설빙·애월공주 사이에 치러진 혼인식의 마지막 절차로서 현구고례(見舅姑禮)에 해당되는 셈이다. 김동육본 계열에 속하는 세 이본의 해당 대목을 면밀히 대비해 보니 논리상 어색한 곳이 전혀 없고 서술된 내용과 세부 표현도 완전히 일치된다.³²⁾ 그렇다면 김동육본 D·E·정명기본 B에 외현의 잔치 장면이 없는 것은 원래 있던 내용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원작에서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³³⁾ 이렇게 본다면 이 대목은 국중본 계열에서 부연되어 성대본 계열로 계승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전 재구시 외현의 잔치 장면은 제외하였다.

⑥은 김희경의 세 부인이 한밤중에 상화루에 모여 지난날을 회고하며 동심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시를 지어 서로 감상하며 즐기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대부분의 완질본에 공통적으로 수용³⁴⁾되어 있기 때문에 원작에서부터 갖추어진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대목에는 김동육본과 국중본 계열에만 있고 성대본 계열에는 없는 내용이 보인다. 그 내용인즉, 세 부인이 시를 지어 돌려 보며 감상하고 있을 때 병풍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희경이 갑자기 나타나 세 부인이 지은

32) 김동육본 D, 84-87면 ; 김동육본 E, 87-92면 ; 정명기본 B, 65-69면.

33)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김평장 생신연 대목 중 외현의 잔치 장면이 포함된 초기 이본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정은 유보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34) 국중본 A, 한중연본 A, 고대본 A, 성대본, 활자본 A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낙질본 중에는 김동육본 D, 정명기본 B, 한중연본 B 등에 이 대목이 수용되어 있다.

시의 고하를 평가하다가 그들의 질책을 받고 무안하여 황급히 물러간다는 것이다.³⁵⁾ 여기서 세 부인은 모종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남편 김희경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에 기반 한 일부다처의 화려한 공존을 부각한 것으로서 <김희경전>의 보수성을 가장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성대본 계열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장편 계열의 단편화 과정에서 생략된 것임을 의미하므로 원전 재구시 이는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이 ①~⑥을 중심으로 <김희경전>의 중반부를 검토한바, 국중본과 성대본 계열에는 생략과 변경의 흔적이 너무도 분명하여 이를 원전 복원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중반부의 내용이 가장 충실한 이본은 김동육본 계열 중에서도 김동육본 D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김희경전>의 원전을 재구하면서 중반부는 김동육본 D를 주된 자료로 삼았다. 물론 김동육본 C·E, 정명기본 A·B도 초기 이본에 속하고 중반부의 내용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동육본 계열 가운데 ①~⑥을 모두 지니고 있는 이본은 김동육본 D 뿐이므로,³⁶⁾ 이를 중반부 재구의 근간으로 삼은 것이다. 물론 김동육본 D에도 부분적인 결함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결함은 동일 계열의 다른 이본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35) 김동육본 D, 93-95면.

36) 김동육본 C : 김희경과 최소저의 혼인 ~ 군담 이전까지 필사됨(①~③).

김동육본 D : 김희경과 최소저의 혼인 ~ 이소저 남장 상경 대목까지 필사됨(①~⑥).

김동육본 E : 군담 ~ 세 부인의 상화루 담소부분까지 필사됨(④~⑥).

정명기본 A : 여장탄금(김-최의 혼인) ~ 남장노출 후 희경의 편지까지 필사됨(①~④).

정명기본 B : 설빙의 연왕 달초 ~ 끝까지 필사됨(②~⑥).

3. 후반부, 김희경-이소저의 만남·이별·혼인

<김희경전>의 후반부는 김희경과 이소저의 만남·이별·혼인을 다룬 부분으로 이합담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후반부의 세부 서사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여 이소저의 남장 상경(上京), 이소저와 김희경의 만남 및 이별, 이소저와 장설빙의 해후, 김희경과 이소저의 혼인 등으로 나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국 김희경과 이소저의 이합 과정으로 귀결되므로 후반부의 중심 서사는 김희경과 이소저의 만남·이별·혼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반부를 살필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반부에서 장설빙과 이소저가 정혼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다. 장설빙은 유배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부친의 시신을 고향 선산에 안장한 뒤 김희경을 찾아다니다 실패하여 강물에 투신한다. 그때 그를 구출하여 거둬준 자가 전 참지정사 이영이니, 이소저는 곧 그의 딸이다. 그런데 장설빙은 이미 구출될 당시 남장을 한 상태에서 ‘장수정’으로 변성명했기에 이영 부녀는 그를 남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장설빙은 이영의 집에 거처하며 수학하던 중 이영의 간청에 못 이겨 이소저와 혼약한 후 과거를 위해 상경하게 된다. 그 후 좀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소저가 갑자기 후반부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스치듯 가볍게 설정된 ‘장설빙-이소저의 정혼’이 ‘김희경-이소저의 혼인’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그려낸 셈이다.

<김희경전>의 이본 21종 가운데 후반부의 내용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 이본은 8종에 불과하다.³⁷⁾ 이들 8종을 대상으로 후반부의 서사내용을 면밀히 대조해보니 스토리 전개과정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①환약과 부적을 얻는 대목, ②천자에게 혼인 허락을 얻는

37) 국중본 A, 고대본 A, 한중연본 A는 전반부·중반부·후반부를 모두 지닌 완질본이다. 이에 비해 김동욱본 F·G, 국민대본은 후반부만 지니고 있고, 한중연본 B·정명기본 B는 중·후반부만 지니고 있는 낙질본이다.

대목, ③자녀들의 이름과 혼인관계 소개 대목 등의 생략·변개 여부에 따라 이본 간의 차이가 확인될 따름이다.

①은 이소저가 꿈에 만난 남두노인성에게 환약과 부적을 얻는 대목이다. 부모 구몰 후 장수정을 찾기 위해 남장 상경한 이소저는 수소문 끝에 자신이 찾던 장수정이 원래 장설빙이란 여자이며 지금은 김희경의 상원부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너무 놀라 길에서 방황하던 이소저는 퇴조(退朝)하던 김희경의 눈에 띄어 부마궁 서당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소저는 자신을 ‘이위’라고 속여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소저는 김희경과 함께 중남산에 봄놀이 갔다가 어머니의 유서가 든 금낭을 잃어버리고 몰래 집을 나온다.

⑥ 즉시 서당을 썬나 가만이 후원으로 나아간니 협문을 닫디 안니혀여 거늘 쇼제 덕희혀여 문을 나 산중에 들어가 숨어든니 날이 저물되 곤혀를 이기지 못혀여 잠간 언덕을 의지혀여 쵸오던니 숨에 한 노인이 부작과 화약을 주며왈 나는 남두노인성일넌니 이 부작과 화약을 가져다가 초흔흔는 스람이 니슬 거시니 츠즈가 이 부작을 가슴에 부치고 약을 먹기면 회싱허리라 허거늘 그 존호를 무으려 허다가 썬다르니 과년 약과 부작이 꺾텃 노여거늘 거두어 가기고 가장 신괴이 여겨 설잉을 다리고 정쳐업시 가든니 (김동욱본 F, 14면)

⑥은 이소저가 금낭을 잃은 이후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려 산중으로 피신하였다가 꿈에 남두노인성으로부터 환약과 부적을 얻음은 물론, 그것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을 부여받는 대목이다. 이소저는 노인의 말에 따라 곡소리 나는 집으로 가서 급사한 소참정 부인을 환약과 부적으로 살려냄으로써 꿈에 그리던 장설빙과 해후하게 된다. 전후 맥락에서 볼 때 환약과 부적을 얻는 대목은 이소저와 장설빙의 재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극적 장치로서 절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김동욱본 계열의 김동욱본 F·G, 국민대본, 정명기본 B에는 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국중본 계열의 국중본 A, 한중연본 A, 고대본 A에는

이 대목이 생략되어 논리상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후반부의 이 내용은 원전에 있던 것이 후대에 생략된 것으로 보이므로 김동욱본 계열을 참고하여 이 대목을 채워 넣었다.

②는 이소저의 과거 행적과 가련한 처지를 알게 된 애월공주가 천자에게 간청하여 김희경과 이소저·영월공주의 혼인을 허락받는 대목이다. 이 대목 또한 앞의 ①과 마찬가지로 서사 전개상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김동욱본 계열에는 이 대목이 12-18면에 걸쳐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국중본 계열에는 2면 내외로 지나치게 축약되어 김희경과 이소저·영월공주의 혼인이 성사되는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김동욱본 계열을 참고해서 기워 넣었다.

③은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성명과 관직, 혼인관계 등을 소개한 대목이다. 김동욱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에는 공히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에 9자 7녀가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딸의 이름, 사위의 이름과 관직, 아들의 관직 등도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아들의 이름은 달라서 김동욱본 계열에는 “구홍·구성·구경” 등으로 되어 있고, 국중본 계열에는 “일기·이기·삼기”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대본 계열에는 아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다가 활자본에 와서 “영봉·경봉·춘봉” 등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김동욱본 계열을 참고하여 통일하였다.

이상으로 ①~③을 중심으로 <김희경전>의 후반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중본 계열은 ①②에서 무리한 생략이 이루어져 서사 논리에 부분적 결함이 초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③의 경우 의도적인 변경이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김동욱본 계열은 어느 이본이든 ①~③의 내용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서 원전 재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김동욱본 계열 중에서도 김동욱본 F가 다른 이본에 비해 문맥이 매끄럽고 오류가 적으므로³⁸⁾ <김희경전>의 후반부를 재구

38) 예컨대 김동욱본 G, 국민대본, 정명기본 B에는 김희경이 이소저를 부마궁 서당

하면서 이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그 밖의 고려사항

이상에서 논의한 것 외에도 <김희경전>의 원전을 재구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인명·지명 등의 명칭 통일, 오탃자·중복 표기·비문(非文)을 바로잡는 일 등이다.

<김희경전>의 주요 인물로는 김정, 석부인, 김희경, 석태위, 장자영, 정부인, 장설빙, 설낭, 영춘, 이영, 진부인, 이소저, 설앵, 최호, 최소저, 소세필, 성부인, 천자, 애월공주, 영월공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본에 따라 성명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장자영’은 여주인공 장설빙의 부친이다. 그를 ‘장덕령’³⁹⁾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본에 ‘장자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했다. ‘이영’은 전 참지정사로 장설빙이 강물에 투신했을 때 그를 구출한 인물이다. 성대본 계열에만 ‘이영찬’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의 이본에는 ‘이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했다. ‘석태후’는 남주인공 김희경의 외숙으로 김희경에게 최승상의 딸을 천거하고 둘의 혼인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성대본·국중본 계열에 ‘석태위’로 되어 있지만 초기 이본인 김동육본 계열에는 ‘석태후’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했다. ‘최호’는 좌승상으로 김희경과 맨 먼저 혼인한 최소저의 부친이다. 이본에 따라 그가 ‘최연·최후·최공’ 등으로 표기되기도 했지만, 초기 이본인 정명기본 A를 기준으로 삼아 ‘최호’로 통일했다. ‘설앵’은 이소저의 몸종이다. 이본에 따라 ‘설향’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지만 초기 이본에 모두 ‘설앵’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했다.

에 데려와 재주를 칭찬하는 대목(김동육본 F, 7-8면), 이소저가 소참정 부인을 환약과 부적으로 살려낸 뒤 장설빙과 대화하는 내용(김동육본 F, 30면)이 생략되었는데, 김동육본 F에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다.

39) 국중본 B, 13면.

한편, ‘애월공주’와 ‘영월공주’는 천자의 두 딸로서 ‘애월’이 장녀이고 ‘영월’은 차녀이다. 천자는 국난을 타개하고 돌아온 김희경과 장설빙을 부마로 간택하면서 ‘김희경-애월공주’, ‘장설빙-영월공주’를 혼인시키려 한다. 이에 장설빙이 천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실토함으로써 부마간택은 결국 ‘김희경-장설빙·애월공주’의 혼인으로 마무리된다. 이러다보니 애초에 장설빙의 짝으로 거론되던 ‘영월공주’는 뒷날 이영의 딸 이소저와 함께 김희경과 혼인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월’과 ‘애월’을 혼동하여 이름을 바꾸어놓은 이본이 적지 않다. 정명기본 A·B, 김동옥본 D·E, 국중본 A, 한중연본 A·B 등에는 애월공주가 장녀로 영월공주가 차녀로 설정되어 있음에 비해, 김동옥본 F·G, 국민대본, 고대본 A에는 영월공주가 장녀로 애월공주가 차녀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명기본 A·B, 김동옥본 D·E 등의 초기 이본을 보면 천자가 부마간택을 할 때 ‘김희경-애월공주’의 혼인을 명하였고, 장설빙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실제로 ‘김희경-장설빙·애월공주’의 혼사가 성립된다. 따라서 나중에 이소저와 함께 김희경의 배필이 되는 자는 영월공주라야 사리에 합당하므로 그에 맞게 고쳤다.

이 밖에도 필사 과정에서 특정 내용이 누락되어 문맥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길가의서 바라보니 슈빅 추종이 일위 쇼년 직상을 옹위호야 낙아오니 금관옥덕에 초복을 갖초고”(김동옥본 F, 3면)의 밑줄 친 부분은 김동옥본 F에 생략되어 앞뒤 문맥이 통하지 않으므로 다른 초기 이본에서 해당 내용을 기워 넣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의 오류까지 일일이 바로잡아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상과 같이 <김희경전> 원전 재구 작업에서는 초기 이본에 해당되는 김동옥본 계열 중에서도 각기 전반부·중반부·후반부의 내용을 충실히 지니면서 이들 간의 연계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김동옥본 A·D·F를 핵심 자료로 삼았으며, 이들 자료에서 발견되는 부분적인 결함은 다른 이본을 참조하여 기워 넣었다.⁴⁰⁾

Ⅲ. 재구된 원전의 가치와 연구 과제

1970년대 이래로 <김희경전>에 관한 논의가 더러 있었지만, 이들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텍스트 선정의 자의성 때문이다. 연구자들 대부분이 정밀한 이본 검토를 생략한 채 활자본만을 거둬 논의를 대상으로 삼은 탓에 <김희경전>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초기 이본인 김동옥본 계열에 완본이 없다면, 마땅히 수집 가능한 이본을 대비적으로 살펴 정본(定本)을 구축하거나 원전을 재구하는 작업을 수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자들이 이를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김희경전>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서는 본고에서 재구된 원전을 중심으로 <김희경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연구 과제를 모색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재구된 원전을 볼 때 <김희경전>은 애초 장편 여성영웅소설로 창작되었음이 분명하다. 장편 여성영웅소설은 대략 18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형성되었는데,⁴¹⁾ 이와 관련하여 <부장양문록>·<김희경전>·<육미당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작품에는 공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는 ‘영웅형 여성’이 설정되어 있다. <부장양문록>의 장벽계, <김희경전>의 장설빙, <육미당기>의 백운영이 그들이다. 뿐만 아니라 세 작품에는 ‘가인형 여성’도 등장하고 있으니 <부장양문록>의 윤선강, <김희경전>의 이소저, <육미당기>의 설서란이 그들이

40) 필자는 현재 본고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김희경전> 원전 재구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조만간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본고를 읽은 익명의 심사자가 이 글이 원전 재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시론적인 글이 아니냐는 물음을 제기한바, ‘재구 방안’이 아니라 ‘재구 작업을 마무리’했음을 밝혀둔다.

41) 정준식,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47-48면.

다. 처음에 ‘영웅형 여성’은 남주인공을 만나 혼약하고 헤어진 이후 남장한 채 떠돌다가 뜻하지 않게 ‘가인형 여성’을 만나 혼약을 하게 된다. 다시 세월이 흐른 뒤 우여곡절 끝에 남주인공을 만나 결혼한 ‘영웅형 여성’은 남편에게 ‘가인형 여성’을 천거함으로써 마침내 이들 작품의 최종 목표인 한 남성 대 두 여성의 결연이 완성된다.

이런 이색적인 결연담을 통해 세 작품은 상호 존중과 신의에 바탕을 둔 일부다처의 화려한 공존을 모색하고 있으니, 이를 장편 여성영웅소설만의 미학적 특질이라 할 만하다. 이런 면모를 지닌 새로운 소설이 <부장양문록>에서 모색되고 <김희경전>에서 정착된 이후 <육미당기>로 계승되었으니, <김희경전>은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김희경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재구된 원전을 텍스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구된 원전을 볼 때 <김희경전>은 <구운몽>·<홍백화전> 등 17세기 재자가인소설의 핵심서사를 수용한 작품임이 명백해졌다. <김희경전>의 작가는 <구운몽>의 여성편력구조를 수용하여 김희경이 5부인 2첩을 얻는 과정을 그려냈고, <홍백화전>의 ‘한 남성 대 두 여성의 결연담’을 수용하여 김희경이 장설빙·이소저와 결연하는 과정을 비중 있게 그려냈다. 이렇게 볼 때 <김희경전>은 17세기 후반 이래 국내에 성행하던 재자가인소설의 핵심 서사를 교직하면서 형성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김희경전>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 사이에 창작된 <설저전>·<이현경전> 등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영웅담 구조를 수용한 흔적도 보이고 있다.⁴²⁾ 이런 정황들은 <김희경전>의 창작시기를 18세기 말로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재구된 원전을 기준으로 삼을 때 <김희경전>은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중반부의 군담이 전면 변개되고 후반부의 핵심을 이루는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이 통째로 생략되는 변모를 겪었다. 초기 이본

42) 정준식(2008), 186-191면.

인 정명기본 계열의 군담은 독창적이며 다양한 전투 장면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이에 비해 국중본·성대본 계열의 군담은 1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는 <설인귀전>·<장풍운전>·<소대성전>의 군담 내용과 유사하여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김희경과 이소저의 결연담은 19세기에 성행한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비추어볼 때 독자들에게 군더더기로 인식되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독창적으로 창안된 군담이 낯익은 군담으로 대체되고 후반부의 결연담이 통째로 생략된 것은 <김희경전>의 통속화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복원된 원전을 통해 볼 때 <김희경전>은 18세기 말에 창작되어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 확립을 선도하였을 뿐 아니라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끊임없는 자기변신을 통하여 독자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간 작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서 <김희경전>은 같은 시기에 창작되어 동일한 변모를 겪은 <홍계월전>⁴³⁾과 함께 가장 주목되어야 할 작품임이 분명하다

IV. 결론

최근 들어 <김희경전>의 이본이 새롭게 발굴·조명되고 작품의 창작 방법 및 후대적 수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김희경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

43) 선행 연구에서 <김희경전>은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확립한 작품으로, <홍계월전>은 단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확립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학계에서는 두 작품의 창작시기를 18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작품이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및 전개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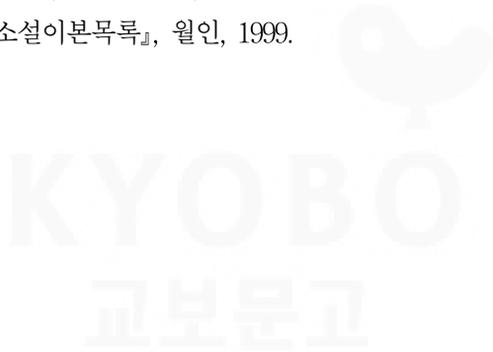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경전>은 초기 이본 가운데 완질본이 한 종도 발굴되지 않은 데다 계열 간 편차마저 적지 않아 이른 시기의 <김희경전>을 가늠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의 논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다. 비록 원작은 아니지만 원작에 가장 가까운 초기 이본을 재구성하여 현존하는 완질본들이 지닌 결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본고에서 재구된 원전을 대상으로 <김희경전>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상서전> : 국문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143장, 완질본).
<김희경전> : 국문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44장, 낙질본).
<김희경전 권지초> : 국문 필사본, 김동욱 소장(68장, 낙질본).
<김희경전 권지일> : 국문 필사본, 김동욱 소장(44장, 낙질본).
<김희경전 권지이> : 국문 필사본, 김동욱 소장(30장, 낙질본).
<김희경전 이> : 국문 필사본, 김동욱 소장(50장, 낙질본).
<김희경전 권지중> : 국문 필사본, 김동욱 소장(48장, 낙질본).
<김희경전 제삼> : 국문 필사본, 김동욱 소장(53장, 낙질본).
<김희경전 권지하> : 국문 필사본, 김동욱 소장(38장, 낙질본).
<김희경전> : 국문 필사본, 고려대 도서관 소장(162장, 완질본).
<김희경전> : 국문 필사본, 고려대 도서관 소장(58장, 낙질본).
<금환기봉> : 국문 필사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188장, 완질본).
<장시효흥녹> : 국문 필사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51장, 낙질본).
<금환기봉> : 국문 필사본, 단국대 도서관 소장(189장, 낙질본).
<김승서전> : 국문 필사본, 성균관대 도서관 소장(112장, 완질본).
<김희경전> : 국문 필사본, 서울대 도서관 소장(138장, 완질본).
<김희경전 권지이> : 국문 필사본, 정명기 교수 소장(52장, 낙질본).
<김희경전 中下> : 국문 필사본, 정명기 교수 소장(66장, 낙질본).
<김희경전 권지삼> : 국문 필사본, 국민대 도서관 소장(34장, 낙질본).
<김희경전> : 국문 활자본(광문서시 간행),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권 (120면, 완질본).
<여자충효록> : 국문 활자본(신구서림 간행), 『구활자본고소설전집』 9권(73면, 완질본).

- 강승목, 「<김희경전> 이본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양상」,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 정준식,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과정」,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월인, 1999.



<Abstract>

Restoration on Texts of *Kim-Hee-Kyeong-Jeon*

Jeong, Jun-Sik

This thesis aims to provide desirable text for studying this work by restoring the original of *Kim Hee Kyeong Jeon*. While the Jeong Myeong Gi version, the initial edition among editions of *Kim Hee Kyeong Jeon* was estimated to be faithful to original, there is no complete works for this version. In regard of this, this thesis adopted as the foundation for restoration of original, Kim Dong Wook version A·D·F that contains the contents of first, middle and last part most completely among the Jeong Myeong Gi version, the initial edition. I found and supplemented the partial defect from the editions that have complete information. Besides, I unified the name of person or place focusing on Jeong Myeong Gi version, and corrected misspelling or omission, duplication or no-sentence, raising the degree of completion.

From the restored original, it became clear that *Kim Hee Kyeong Jeon* was not only created as the full-length woman heroic novel, but also accepted the core narration of the 17th century wit and beauty novel. In addition, more persuasive was the argument suggesting that *Kim Hee Kyeong Jeon* was first divided from the original to Jeong Myeong Gi version and Kuk Jung version, crossed 2 versions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omitted the last part, creating new Seong Dae version. I expect the discussion on *Kim Hee Kyeong Jeon* will

advance further for the restored original.

Key Words : Kim Hee Kyeong Jeon, full-length version, short version, initial edition, woman heroic novel, original texts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4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

